

고은 불교대하소설



이 상한 것은 해일이 한번으로 물러나지 않는 일이었다. 몇번씩 안가를 딱히 해아릴 수 없는 것이었으나 무욕도 꼭대기가 수면 위로 작은 암초처럼 남겨지는 엄청난 규모가 세번쯤 되었을 때 우너는 지난번 난바다의 파도머미 위에서 때때 나 무토막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표류자였다.

갑자기 덮쳐온 파도에 떠밀리면서 우너는 부딪쳐온 뱃목 나무토막에 머리를 얻어맞고서야 정신이났던 것이다. 발안간의 일이어서 부지불식간 발린 입으로 판물을 들이킨 뒤 의식을 잃었다가 떠다니는 나무토막에 부딪쳐 그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다. 이를테면 그 나무토막이 그를 살려낸 셈이다.

천상에서 살아 다할 때의 천인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것처럼 이 사바세계의 총말인 무욕도의 사태에서도 그곳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던 우너에게 어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어 다른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해일이란 그것이 범속한 본래의 수면으로 돌아가야 하였다. 그런데 이번 서해연안의 엄청난 해일은 여러번 거듭된 것이었고 거듭될 때마다 그 규모가 앞서 있었던 것에 견줄 수 없이 큰 것이었다. 우너가 그의 오랜 수행동반인 무욕도 쪽을 돌아보았을 때 바다 위에는 멀리 육지의 해안지대만이 보일 뿐 무욕도의 지위는 어디에도 없었다. 난바다 깊숙한 일대에서는 무욕도 꼭대기가 작은 암초 덩어리로 보이는 것조차 짐작할 수 없었다.

그것은 겨우 사람의 키 두 곱인 심여치의 높이였으나 3백50척 정도의 무욕도

높이를 잠가게 한 수면의 상승이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아니, 이런 사태는 있을 수 없었다.

바다 수면이 그런 규모로 높아진 것은 이 일대의 일만이 아닐 것이다. 사바세계 삼부주만이 아니라 수미산 아래의 여덟 바다가 다 그렇게 높아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바다 수면의 간만(干滿)이나 수면 변화의 현상이 오랫동안 달과 관련되는 일이므로 크게는 바다만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이기도 하였다.

결국 세상의 육지는 그만큰 그 육지의 번두리들이 흠여들어 바다를 한층 더 넓혀준 것이다.

이런 현상은 조선은 물론이거니와 청나라나 일본열도에서도 사람들이 그 말세 사태의 공포에 떨어 재 정신을 놓아 버림으로써 때로는 좀더 높은 곳으로 도피하거나 때로는 미쳐버리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왕이 죽었는데도 다음 왕이 즉위하지 않았으며 청나라 바닷가에는 오랫동안 남겨진 배란 배들을 다 불

에 의해서 육지의 많은 부분이 파멸했을 때 결사적으로 도피한 인류나 동물들이 그 뒤로 산꼭대기나 높은 곳마다 기도의 성소(聖所)로 만든 것도 해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그것이 오랫동안 산꼭대기마다 천단(天壇)이 되어 사람들이 상신을 깨끗이 한 뒤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되었는지 모른다.

이제 무욕도는 누군가가 지난날의 그곳을 탐사하기 위해서 누누히 살펴보지 않고는 발견하기 어려운 암초로 파도의 무덤에 잠겼다가 솟아 올랐다 할 따름이었다. 마치 저 제주도 아래 이어도처럼 현실의 섬이 아닌 저승의 섬, 저승의 섬만이 아닌 숨겨진 현실의 섬으로 애매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서해안의 그다지 높지 않은 산위의 서쪽을 향하고 있는 암벽에

표류

안의 해일과 바다의 커다란 변화 때문에 미쳐버린 고기들이 그의 몸 여기저기에 달라붙어 그를 먹이로 삼는 것을 받아하는 일 때문에 그 절절한 선정도 자주 토막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지막 육신을 고기들의 먹이로 바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바칠 바에는 그 육신에 담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간절한 공양(供養)의 발원으로 골파우고 싶었다.

그래서 그의 선정은 토막나기는 하지만 여간 열렬한 것이 아니었다.

"아아 나쁜이 아니로다."

우너는 이제 파도머미를 타는 몸의 율동에 익숙해져서 처음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볼 여유가 생겼다.

멀리 육지쪽을 향하였다. 거기에 정든 섬은 있지 않았다. 오직 누런

다.

"충청도라...우리는 전라도 어청도에서 떠내려 왔다고."

"우리아-하시면?"

"저쪽에는...나와 한 마을에 살고 있던 양반집 며느리도 있소...그런데...당신은...남자요? 여자요?"

"굴이 뽕는다면 여자이지요."

"머리를 꾸는 흔적을 보나..."

그는 여기까지 말하다가 저쪽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열정 물자위 조각을 뿜든 채 그쪽을 향하였다.

하지만 해일의 물난리로 하여금 지금 세상은 짜잡아서 크게 동요되고 있고 바 꾸어져 있었다. 아니 바닷가 포구들이나 난바다의 배들도 어느 것 하나 없이 제대로 출몰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차라리... 고기밥이 되어... 이 바다속 중생들에게 한 조각 보태는 일을 하고 싶구나..."

그는 날마다 인연에 응하여 순순히 따르는 곳(日用應緣處)이 바로 이 바다라는 허전한 생각도 하게 되었다.

저쪽에서 어떤 소리가 났다. 그것은 여

엄청난 해일이 몇차례 밀려와 사바세계 무욕도 전체를 삼켜버렸다 몇마리 새들만이 살아나 육지로...



"차라리 고기밥이 되어..." 우너는 간절한 공양발원을...

대위 버림으로써 바다 밑 용왕의 진노를 풀게 하였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조선 서해안에서도 현악이나 군수들이 도망치고 백성들이 화약고를 습격하여 난리를 꾸며 입진 왜란 이후의 가장 심각한 혼란으로 밤낮이 풀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관청과 산중의 사암(寺庵)들이 그런 백성들의 붕기 진영으로 바뀌어져 본래의 역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한양상의 궁궐도 텅 비어서 금강산의 한군데에 왕과 조정이 옮겨가 소개되었다 한다. 바다의 수면이 높아져 한강의 노를나루도 없어졌고 남대문도 물에 잠기게 되는 사태이므로 그럴 수 밖에 없었다.

모든 것을 높은 곳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몇10만년전의 세계에서도 엄청난 해일

새겨져 있는 마애불상만이 무욕도의 빈자리 일대의 바다를 멀리 내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무욕도에서 살던 산승들은 그 대로 물 속의 고기밥이 되어야 했고 갈매기와 까치 그리고 몇가지 새들만이 가까스로 목숨을 살려 육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우너는 오직 선정(禪定)에만 들어 있었다. 다른 망상 따위야말로 술한 파도머미와 다를 바 없었다. 오직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 거절의 정신만이 언제 어디서나 이어지고 있는 중생과 함께 있게 되는 그 자유선(至遊禪)의 경지라 할까.

이르는 곳마다 그곳에 구애받지 않는 자재의 선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물 속의 추위에 뽕뽕 부어오른 채 피가 돌기 어렵게 굳어가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물속에서 그를

해안선의 육지가 있을 뿐이었다.

난바다 일대에 떠내려 와서야 우너는 다른 곳에서 표류된 사람 다섯과 개 그리고 짐승을 받쳐주고 있던 기둥과 널판 따위가 그곳에 우연의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 생기가 난 것이다.

"나쁜이 아니로다. 여럿이로다. 여럿이로다."

그런 우너에게 저쪽 파도머미를 넘어 오는 사람이 있었다. 삼투가 들어져서 마치 효수로 처형당한 죄수의 머리같은 그런 봉두난발의 얼굴이었다.

"어디서...왔소?"라고 그가 사람의 말로 말하였다.

우너가 대답하였다.

"무욕도에서 왔습니다."

"무욕도... 그곳이 어디요?"

"충청도 서산방 앞바다에 있는 섬이나

이런 해일 이래의 난바다에서 사람들 만난 것이 도리어 깊은 안도감 때문에 몸 속에 남아서 지탱해주는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우너는 바다 전체가 회오리쳐 도는 현기증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꼭 불뚫고 있는 뱃목 나무토막도 놓아 버리고 싶었다.

놓아버리고 싶은 나머지일까, 그는 잔뜩 물에 불은 긴 나무토막을 놓쳐버린 후 저만치 떠내려가는 것을 가까스로 헤엄쳐 가 다시 붙잡을 수 있었다.

"차라리..."라고 그는 고기들에게 먹이려는 생각을 하였다.

이렇게 물 위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동안이 대체 얼마나 되었는가.

어느 때리면 난바다를 지나는 무역선이나 세곡선 그리고 어선들을 만날 행운이 만어 하나는 기다리고 있을 터이다.

가까지 들리기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희미하게 들렸으나 비명임에 틀림없었다.

파도 등으로 울리서 힐끗 바라보니 아까 돌아갔던 어청도 남장네와 그 일행들이 저취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그 일대의 조류에 어떤 현상이 생겨났는지 사람들과 짐승을 그리고 널조각 따위들을 뽕뽕 물속에 삼킨 것이었다.

우너는 그 사실을 감지한 나머지 그가 떠있는 물속이 만경이나 더 깊어진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는 하반신의 몇군데에 닿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한동안 뜬뚫은 고기들의 입집이었다.

그는 그 고기들이라도 하나를 모여들어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덜 외로웠다.

"이제 내 오두막을 허물 때에 이르렀다."

우너는 그 자신의 이성을 마감하는 듯

이 조금씩 확실해지고 있었다.

그는 지난날 인연을 만나서 그의 뒤를 종중결음으로 따라온 이래 오늘에 이르는 동안 한강 팔경로 떠돌고 있었다. "아 삼천전 참다운 소식(三千年前眞消息)이여, 이제 마치는도다."

우너는 누구에게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 파도머미 하나가 그의 반쯤 벌린 입안에 물을 가득히 머금게 하였다. 그 판물을 삼켰다.

그는 이 사바세계를 마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놓아버렸다. 그것은 이제까지 그와 헤어지고 애쓰다가 신나게 헤어지는 듯이 벌써 저만치 떠가고 있었다.

우너는 한번 물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떠올랐다.

그림·조항숙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킴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계)와 감시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시초음표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정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적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명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계)와 감시초 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 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황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보아 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계)와 감시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황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암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 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가서 노화억제, 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불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